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4월 발행 (제 48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쓴물' 예레미야

◎간증 '영의 싸움' E3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쓴물' 예레미야

오늘은 "쓴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쓴물로 사람이 죽는다>

성경은 종말의 날에 물이 쓰게 되고,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8:11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에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고통은 (원전사고가 있던) 체르노빌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원전의 방사능 피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해석도 어쩌면 약간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에게 보내기 위해 쓰여진 것임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믿음과 영생과 관계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믿음과 영생에 관계가 있음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다음 말씀처럼 비록과 수수께끼의 책임을 기억합시다.

시편 49: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에서는 '나의 수수께끼를 밝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수수께끼가 포함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수수께끼'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수수께끼로 가득 찬 책이므로, 그 수수께끼를 주님의 지혜에 의해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쓰라림 때문에 그것은 방사능을 가리키는 것이다 등의 어림짐작과 같은 표면적인 해석 듯이

시종해서는 안 됩니다.

<쓴물에 대한 수수께끼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 쓴 물에 대한 수수께끼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로 쓴물에 대한 설명이 구약 민수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민수기 5:19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5:24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여기에서는 남편이 간통 의심을 갖게 마는 여자(아내)와 관련하여 '쓴물'을 마시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실제로 간통죄를 실시해야 그 물을 마셔도 물은 쓰고 아니라 쓴물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나 간음을 하고 있다면, 그녀가 쓴물의 해를 입을 수 있다고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내도 비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결혼은 비밀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킨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러한 것을 함께 생각한다면 종말의 날에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자, 즉 종말의 날의 교회의 문제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래 유일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순결을 보호해야 교회가 그 날 다른 사람과 간음함에 따라 물이 쓰게 되고, 그 쓴물 때문에 해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말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는 진정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것을 남편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는 진정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교황의 말씀과 마리아의 예배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지만,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마리아의 동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등의 핑계를 반복하며 이러한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진정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들과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교회의 물, 즉 영은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를 괴롭히는 신부의 많은 스캔들 이 쓴물, 천주교을 덮는 악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말의 날의 교회가 세상이라던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남편인 그리스도 떨어져 가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의 많은 설명이 도움이 실현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서는 종말의 날의 교회가 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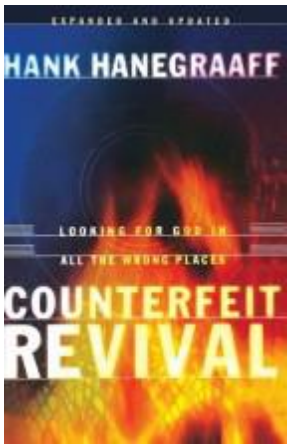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사용되는 '배교'라는 말은 그리스어 apostasia 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음의 '이별'로 번역된 말씀, apostasion 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어 사전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마타이 5: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배도와 결혼 상대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종말의 날에 일어나는 배도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이별하고 쫓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내는 교회의 부정이며, 따라서 그 저주로 쓴물이 교회에 내려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종말의 날에 남편인 그리스도를 떠나 간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만,



쓴 물 귀신적인 부흥을 고발하는 책

정말 종말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음녀 바벨론의 특징은 교회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8:4 ○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포도주는 성찬식의 포도주로 통합니다. 따라서 이 바빌론이라는 음녀는 확실히 교회와 관계 가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또한 7 번째 교회, 종말의 교회인 라오디게아는 주로 이 집 밖으로 쫓겨 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사는 것이며, 한쪽이 집을 쫓겨나는 결혼 관계의 이상사태인데, 그것은 이 종말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인 그리스도는 아내인 교회에서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몇 가지 말씀은 종말의 날에 아내인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등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계시록 8 장 물이 쓰게 되는 이유는 종말의 날의 교회의 간음과 관계 그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여자, 교회에 쓴물로 해를 입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쓴물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쓴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쓴물에 의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물은 성령의 비유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7: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은 성령의 예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쓰게 된다고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일하던 성령이 변질되고 대신 악령이 일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악령에 변화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성경은 그런 일이 종말의 날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미리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야고보서에도 쓴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이 야고보서 3 장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선생님을 통해 있을 때는 단물, 즉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교사를 통해 쓴물, 즉 악한 영의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그 행보로 나름 그 봉사하면 성령 되지 않는 악령을 사람들에게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물은 계시록 8 장 쓴물에 통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쓴물이란 간음 교회에 대한 것이고 교사, 목사를 통해 쓴물, 구체적으로는 악한 영을 들이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가는, 그런 일을 예언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근간은 영적인 문제이며, 그러한 영을 받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66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은 그 사람이 받은 영혼이야말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생명을 주는 가장 근간적인 부분이며, 포인트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물이 쓴물로 되어 성령이 악령에 변화하는 기독교인의 행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질되는 두려운 날이라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배도의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 기독교인의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분, 받은 영혼에 대해 적의 공격이 추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좀 더 성령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은 혈액에 비유합니다. 다음 레위기에서는 성혈이신 성령이야말로 사람의 생명에 소중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레위기 17:14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여기에 피가 생명 그 자체인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유의 의미로 피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 즉 영에 참여하는 것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자면, 그 사람이 올바른 피를 받았는지가 그 사람의 생명의 근간에 관한 어떠한 영혼을 받았는지의 여부로 생명의 근본문제이며,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거룩한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행보에 이끌려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악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 행보가 더러운 미혹된 것으로 채워지는 것 입니다 영생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피 곧 영혼이야말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날>

이러한 관점에 따라 시작 부분 요한계시록 8 장 8~11 의 기술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8: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산은 나무가 자라는 곳과 같이 교회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올리브, 무화과 등의 나무에 비유되지만, 그 나무가 자라는 산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는 오순절 날 성령이 불꽃 같은 형태로 내렸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서는 악한 영의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도 피도 마찬가지로 영의 비유를 악한 영의 비유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악령의 바다에 던져지는 악령의 부흥 석권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8: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생명이 있는 것과 영생을 가진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비유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물고기처럼 바다, 성령의 바다에서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악령에 계속 해를 입는 사이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는 바다 성령의 바다를 움직이는 것으로 교회의 비유 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악령의 부흥 속에서 배, 교회를 분쇄해 나가는 것이 비유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8:10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하늘의 별, 땅의 모래'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비유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악령의 부흥인 불에 불탄 한 큰 기독교, 그릇이 그리스도 교회의 웅덩이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령의

물을 부어진 것처럼 될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8:11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 고생, 쑥이라는 그릇은 어쩌면 적그리스도 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따르는 영을 받아 많은 기독교인이 쓴물, 즉 악한 영을 받아 목숨을 잃고 죽음과 죄가 전달되었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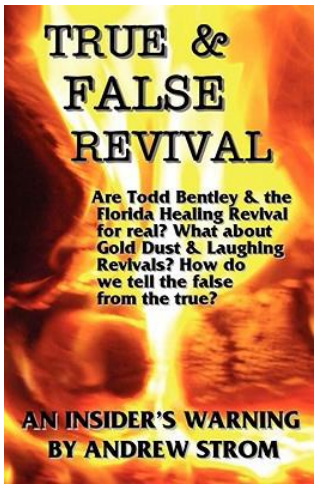
따라서 반복하지만, 여기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령에 대해 공격이 일어나는 날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쓴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영향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이 악령, 사탄 이래의 영이 있으면, 누가 괜찮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과 행동은 이상한 것이 되어, 죄에 빠져 결국은 영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흘러 들어가는 쓴물>

이는 쓴물이 주어진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터 와그너가 주창 하는 성령의 제 3 의 물결은 악령의 물결이며, 쓴물입니다. 그것은 한때 이단으로 오순절에 의해 거부된 후 비운동의 재래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받아들여 교회에 쓴물이 흐르고 많은 스캔들이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진 것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나 스캔들은 실 이며 목회자와 사역자가 어떤 나무인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어떤 영에 감동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며 올바른 길을 바르고 나타내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그리스도 교회에 이상한 스캔들이 많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교회를 흐르고 있는 물이 쓴물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거나 우리 몸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결한 세균투성이의 물을 마시면 배가 아파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물에 관해서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것은 그 흐르는 물, 영혼의 문제 입니다. 성경은 쓴물이 내려 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쓴물은 많은 것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으면 그대로 육체의 죽음을 바를지도 모르고, 설령 죄의 결과로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익어 죽는다" 야고보서 1:15 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 봅시다. - 이상 –


TRUE &
FALSE
REVIVAL
Are Todd Bentley & the Florida Healing Revival for real? What about Gold Dust & Laughing Revivals? How do we tell the false from the true?
AN INSIDER'S WARNING
BY ANDREW STROM

거짓 부흥을 고발하는 책

간증 '영의 싸움' E3

일전 예배 설교를 통해 천국을 목표로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가르쳐 주었으므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두번째로 디모데후서 2 장의 말씀을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위 구절은 바울이 영의 자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와서 내세워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때에 참고가 되는 말씀하신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기'**와 **'규정'**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규정'**에 따라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목사가 예로 '영적인 싸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메인은 그 것이므로, 당시에 인용한 말씀에 따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베드로후서 2:10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2: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방금 **'규정'**에 따라 우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기'**(원어: 격투기→ 악령과의 격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그 존재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얻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규칙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신이 정한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해서도 신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 **"권위를 멸시하는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1 절에 **"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예배에서 메시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읽어주세요.

지금의 세계에서 인간(동생)은 천사(오빠)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 나가기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존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 피터 와그너는 '영의 싸움'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천사를 물리쳐 가는 것은 말씀에 기록 된 것과는 다릅니다. 천사 쪽이 인간보다 기세에 있어 성능에 있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적 싸움으로 한다는 것은 파출소 순경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권위에 반대하고

위험에 만나거나 중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까지 있습니다. 천사의 권위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눈을 봅니다. 천사에 대한 대응과 영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을 리 없다라고 말씀으로 심판해 버리므로 주의 합시다. 비록 나쁜 천사라도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목사가 렘넌트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로 부름 받기 전에 한번 가고 있던 교회 사람들과 함께 모 신궁에 영적 싸움을 본 적이 있고, 그 날은 특히 정말 없었던 것입니다만 다음날 갑자기 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후 좋아진 듯 합니다다만... 원인은 '영적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권위에 반대하여 계명을 받은 지도 모릅니다. 실은 나도 한때 그리스도인에게서 "교회 근처에 신사가 있으니, 이제 모두에게서 악령의 쫓으러 가보지 않을래? 그러면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라는 달콤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안 가길 다행이다! 가면 큰일날지도 모르겠다'고 예레미야 목사의 설교와 간증을 듣고 안심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악령을 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쫓아 낼 수 없었던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에 대해 총 맞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예배의 메시지와 예레미야 목사의 간증을 통해 귀신을 쫓아라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었으므로 쉽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살펴봅시다.

참조 마태복음 8: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위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병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 내고 치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어딘가 사원에 나가 거기 있는 귀신들을 쫓거나 싸웠다든가, 그런 글은 성경 어디를 찾아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악령'의 몰아냄에 대해... 성경에는 예수님은 질병이나 근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귀신을 쫓아 낸 것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에 준하는 일을 한다면... 영적으로 혹은 육신의 병이든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든 사람에게 사로 잡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질병의 방출을 위한 것이지만 '악한 영'을 쫓아 내는 것에 관해서도 역시 성경에서는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말한 것이지만, '악한 영'을 쫓아 낼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써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은 아닌가요? 절대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다음 말씀은 그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사도행전 19: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9: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9: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19:14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9:15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9: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3 절에 기록된대로 제사장 스케와 그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했는지 악령으로부터 "누구냐! "라며 구타 당해 버렸습니다. 스케와 그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군중의 행보를 하는 기독교인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11,12 절에 기록된대로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기적을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을 통해 병든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군중에 권위를 준 것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 낼 수는 12 사도와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로 걸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의 시대도 그 사실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보를 해 기독교인에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행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적인 싸움'에 대해 어떻게 이해 하셨습니까? 천국을 목표로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점에 주의 하면서도 지금 바로 영생의 일과에 오로지 힘 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도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